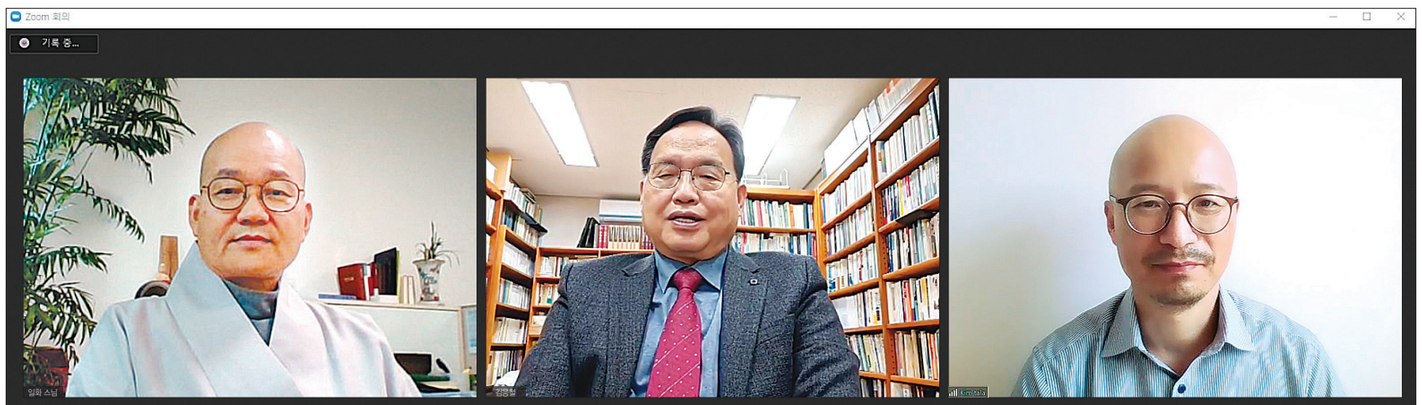
온·오프 병행, 5060 랜선기부 잠재력 크다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코로나 시기 불교계 기부, 후원이 50% 이하로 감소했다. 코로나 시기 기부, 후원 감소는 대부분이 대면접촉 방식의 기부 모연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는 온라인과 모바일 기부의 확대, 즉 랜선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에게 불교 기부문화의 미래와 모바일, 인터넷 랜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포스트코로나 랜선기부의 진단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하여, 불교계 대표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상임이사 일화 스님(사진 왼쪽 첫 번째)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 소장을 각기 인터뷰 하였다.

Q1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 종식에 대한 사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언택트 방식의 다양한 삶의 변화는 시대변화에 따라 같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진단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랜선 기부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의 조류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가.

김응철 : 기존에도 ARS나 자동이체 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랜선 기부는 그런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방식은 기존 기부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 기부문화의 확산 시발점이 되고 있고 이런 물결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랜선 기부는 5060은 아직 익숙지 않지만 2030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머니, SNS 활동 증가 등에서 기부문화는 계속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ARS나 CMS 정착처럼 모바일 기부도 확대될 것"
스님 교육 담당하는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

일화 스님 : 2020년의 모금액을 보면 의외로 기부모연이 잘 된 부분도 있다. 이는 많은 단체들이 전통적인 대면 방식 모금과 달리 비대면으로 모금활동의 역량을 키웠고, 여기에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더해지며 기부 참여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택배로 바자회 물품을 받는다. 스타트업이라도 좋으니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풍토부터 불교계에서 조성해줬으면 한다.

Q5 랜선 기부는 영상을 비롯한 미디어를 활용한 기부 동기부여와 기부내역 등의 점검, 챌린지, 릴레이 방식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런 랜선 기부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활용가능하지 않을까.

일화 스님 :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오는 온라인 모금 상황에서 이른바 모금창구가 살아남는 방법,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방법은 결국 동참하는 이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일일 것이다. 불교로 본다면 불교가 지닌 자비 나눔의 가치를 먼저 불자들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한 번에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기부보다, 꾸준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계속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층에 대한 포교와 전법도 마찬가지다. 시대변화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되, 이들이 혹한 마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돌아보고 나눔에 동참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고민하겠다.


"일회성 기부보다 공감확대 온·오프 기부로"
불교대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김응철 : 위에 고령층이 디지털 교육 이후에 활동 미션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젊은이들도 기부와 같이 호감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한다. 가령 북한산 지킴이 활동을 본다면 직접 활동도 하고, 영상으로 소개도 하며, 지킴이 기부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사찰과 불교계가 랜선 기부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단순히 온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듯하다.

김재춘 : 랜선기부는 장점이 많다. 실제 기부 모연에서 대면으로 요청을 해도,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심지어 비교까지 하고 기부를 하신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면보다 이성적인 정보전달량이 많다는 점이다. 관건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리는 이른바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불교계에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발견했다. 시대 흐름인 랜선 문화에서 스님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계속 받으셨으면 한다. 이와 함께 위에 말한 이른바 전문조직 지원에도 불교계가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Q2 정보통신부 등에서 펴낸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고령층이 주요 신도층을 이루고 있는 불교계는 랜선 기부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불교 랜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는?

김응철 : 본인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랐다. 궁금해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서 사용법을 물어봤다. 익숙해지니 이만큼 편한 선물주고 받기가 없더라. 사실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기술은 무관심하다 보니 사용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법 인지를 시킨다면 중장년층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을까.

일화 스님 : 아름다운동행도 주요후원자들이 고령층이고 이분들은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연 기회 때 모바일도 함께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팔만사천결사 온오프라인 부처님 카드를 만들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부처님카드를 발송하고, 그 뒤에 QR코드를 넣어 모바일 후원가입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기부 배경을 넣어드리고 있다.

김재춘 : 고령인 분들이 IT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것을 체험하고 숙달된 분들은 충성도가 높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경우 10대 시청률이 높지만, 60대 시청율도 2위를 기록할 정도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IT기술은 점점 고령층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되고 있다. 여기에 동년배들 사이의 소통, 전파성을 보면 젊은 층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계에서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콘텐츠나 기부, 법문 등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교계에서 불교온라인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사찰과 단체를 지원하는 온라인 콘텐츠 교육 및 개발기관이 없는 점이 안타깝다.


"온라인 콘텐츠 진흥원 전문 조직에 자원을"
아름다운가게 기획 공익활동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

Q3 디지털문해, 디지털에이징 등 고령층에 대한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 향상 교육이 불교계에서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랜선 기부 문화에 대한 홍보, 교육은 어떻게 이뤄질 것이라 보는가.

일화 스님 : 고령층은 다양한 채널이 있더라도 익숙한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편과 소식지, 연차보고서 등의 전통적인 방법을 먼저 활용해 차츰 온라인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재춘 : 정토회의 경우가 좋은 사례다. 정토회도 처음에 온라인 법회 등을 한다고 했을 때 직접 스님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10년 가량이 흐르니 지금은 노보살님도 영상으로 보고 즉문즉설을 본다. 물론 이 부분이 사람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한다. 하지만 멀리 본다면 기술개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홀로그램과 냄새를 전송하는 기술 등도 개발되고 있다. ARS만 하더라도 먼저 도입한 곳들이 이른바 흥했다. QR기부도 그렇고, 모바일 기부도 그렇다.

김응철 : 한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60세가 넘은 어르신이 교회 신도들 명단을 보면서 클릭해 바로 통화하고 결과를 메모하는 것을 보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서 놀란 것 보다, 저걸 어디에서 가르쳐 줬을까, 저렇게 하는 이른바 '미션'을 어디서 줬을까 생각해보고 놀랐다.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서 랜선 기부를 비롯해 디지털 교육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 신도들의 온라인 소통 참여와 소통, 소임별 동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늘게 된다.

Q4 불교계에서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처럼 큰 기부처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기부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곳들은 아직도 랜선 기부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김응철 : 아름다운동행이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거나 본사와 말사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기부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요즘에는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 공동모금의 지정기부를 활용하면 활성화 되리라 본다.

김재춘 : 계속 이야기하게 되지만, 모금,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이 다른 게 아니다.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기 위해서는 기부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경우 '미션펀드'라는 곳이 있다. 모금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캐치프레이즈도 재밌다. '생활비 사역비 걱정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다.

종교계에서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런 조직이 이른바 전문조직이다. 가령 자선바자회를 예로 들어보자. 코로나로 인해 바자회가 힘들어졌다. 저런 조직들은 발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했다. 신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